

# “꽁꽁 언 겨울 출판시장 언제 해동되나”

‘겨울 성수기’가 무색 ... 출판량·매출액 급격한 감소 현상

최태원

출판평론가

이상기온으로 예전같은 매서운 추위가 사라진 겨울. 그러나 출판시장의 겨울은 여름과 더불어 ‘양대 성수기’로 불리던 이전의 평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썰렁하기 그지없다. 우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한파는, 신간 출판량과 서점 매출의 급격한 감소

지난 12월부터 1월과 2월, 3개월 동안 출판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위축돼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베스트셀러군을 이끌었던 소설 《아버지》가 오랜만에 밀리언셀러로 등극돼 각별한 관심을 모았지만, “종합 2위부터 20위까지의 판매량을 합쳐도 《아버지》 한 권에 못미친다”는 얘기가 나돌 만큼 전반적 침체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출판계는 “몇 년간 지속돼온 불황이 이제 고착단계에 이르렀다”는 자체 진단을 내렸다. 그런 와중에 노동·안기부법 개정 파문과 한보 대출비리, 그리고 북한 노동당 황장엽 국제담당 비서의 망명과 이한영 씨 피격사건 등 숨돌릴 겨를없이 이어진 메가톤급 뉴스들로 신문의 지면이 채워졌고, 책은 그만큼 멀어졌다.

## 출판종수 예년에 비해 큰 하향곡선

출판쪽에서 보자면 ‘악재’일 수밖에 없는 대형사건들이 줄줄이 터진 최근 3개월간의 출판량은 어느 정도 줄었을까?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문화체육부를 대해해 집계하는 ‘월별 납본통계(전국)’를 살펴보는 것으로 그 추경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96년 12월의 초판 종수는 3331종에 발행부수는 1천255만여부를 기록했다. 95년 같은 달 초판 종수가 2,873종에 발행부수 1천45만여부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다소 증가한 것. 바피 말해 제작년에 비해 지난해 연말의 출판시장이 활황국면에 접어드는 듯했다. 반면 한달 후인 올 1월의 초판 종수는 2,812종에 1천395만여부로 96년 1월의 2,914종 2천53만부에 비해 종수가 늘기는커녕 크게 줄었을뿐 아니라 전달과 비교해서도 큰 폭의 하향곡선을 그었다.

이같은 수치변화는 불황을 대하는 출판사들의 위축심리가 발행종수와 부수의 현격한 감소추세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행본 출판의 ‘꽃’인 문학분야는 지난 1월 352종으로 96년 12월(469종), 96년 1월(384

## 출판시장의 겨울은

썰렁하다. 신간 출판량과

서점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전반적인 침체 분위기

속에는 출간시기를 늦추는

출판인들의 불안심리가 깔려 있다.

종), 95년 1월(370종)과 비교할 때 최저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산술적 수치의 행간에는 더 큰 불안이 숨어 있다. 출판영업자들 사이에선 “올봄 신학기철이 끝나는 4월에 접어들면 부도날 출판사나 서점이 줄을 섰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고 있는 것이 올 겨울 출판시장의 부인 못할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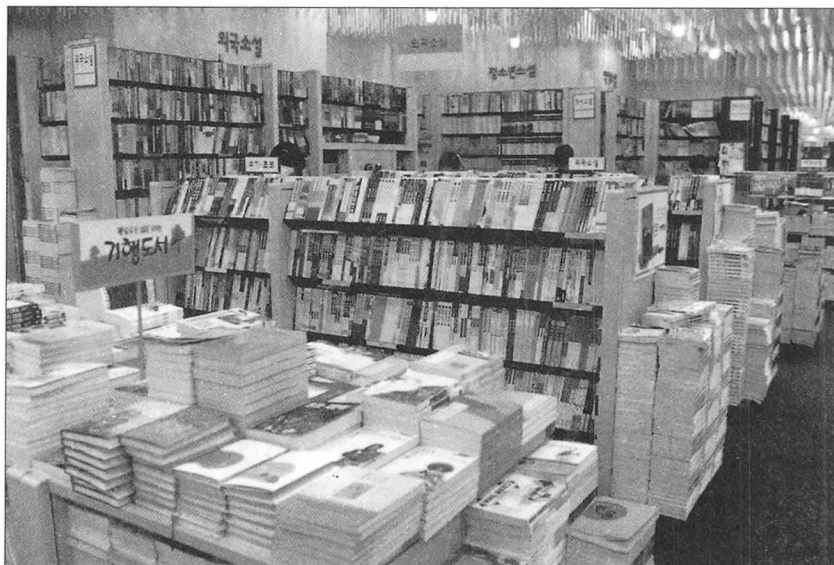
한편 서울시내 대형서점들마저 판매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학습참고서 판매로 신학기철에도 뒷짐을 지며 태연했던 대형서점이 전과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종로서적의 경우 “지난 1월의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 가량 줄었다”고 밝히고 있다.(경향신문 2월22일자, 박구재 기자)

그러나 종로서적과 달리 전년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교보문고의 경우 “참고서 시장이 달아오르지 않은 2월 중순 현재 순수 단행본만 따져도 30%가 웃도는 매출신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김재준 과장의 얘기다. 그의 얘기를 더 들어보자.

“최근 몇몇 일간지가 대형서점의 매출이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인해 크게 줄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 우리의 경우 큰 폭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실용서와 경제·경영, 어학 등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이어서 “우리 서점의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출판계가 불황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한두 서점의 예를 들어 대형서점을 묶어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부진한 출판사들이 있다면 그것은 독자들의 기호를 따라가지 못한 굵든 행보 때문”이라고 꼬집는다.

대형서점의 매출신장이 출판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전하는 건 아니다. 수급을 위해 지



올 겨울 출판시장은 크게 위축돼 있다. 출판사들은 신학기철에 주력상품 내놓기를 꺼리기도 한다.

방출장을 다녀온 영업자들은 한결같이 “대형서점의 성장은 일반서점들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전반적 시장은 확실히 가라앉아 있다”고 전한다. 따라서 서점의 미진한 영업 실적에 따라 출판사들이 “시기적으로 지금 책을 내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일반도서 비수기인 신학기철에 주력상품을 내놓기를 꺼리는 것은 당연한 일.

하지만 이미 제작을 끝냈거나 제작중인 책들의 출간시기를 미루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창작시대의 부영진 대표는 “올들어 국내 문학물 출간에 본격적으로 덤벼들 작정이었지만, 시장 상황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면 일단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그같은 출판인들의 불안심리가 신간 발행을 망설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 불안심리로 신간발행 망설여

특히 2월은 설 연휴가 있었고, 올해엔 28일이 말일인 관계로 실제 영업일자는 15일 정도에 지나지 않아 출판사들의 매출액 감소는 물론 신간 발행 기피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전체적인 출판량 감소와 판매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분야별로도 특징적인 각개잔이 이뤄져 달라진 출판장르의 변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 단행본 시장을 양분하면 국내 저자와 외국저자들의 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 시각에서 보자면 최근의 서점가는 “양인을 몰아낸 흥선대원군격”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소설만 따져봐도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설시장은 국내작가들의 ‘한판승’이 아닐까 싶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신경숙·은희경 등 30대 여성작가들뿐 아니라 《아버지》의 김정현은 물론 신인·중견할 것없이 발군의 기량을 발휘하는 반면, 번역소설의 인기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존 그리섬·로빈 쿡 등 단골 인기작가들의 선작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우리 역사와 민속 등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이나 민속학자 주강현씨의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등이 일반 교양서의 국내 저자 우세를 이끌며 역사분야를 오랜만에 인기장르로 급부상시키기도 했다. 한편 영화감독 이규형씨의 《일본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등 체택 관련서가 명예퇴직과 경기침체 등 불황의 여파에 힘입어 소장르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베스트셀러 편식증과 빅뉴스에 치인 독서분위기 등 외부 요인도 시장 침체의 주요 요인으로 손꼽을 수 있지만, ‘우리 역사 읽기 붐’ 등을 불러일으킨 돋보이는 기획물을 볼 때 참신한 기획의 부재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대통령선거를 전후한 정치 열풍 속에서도 책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는가. 올 여름시장이 궁금해진다. ❖